

2024-01-02 (2024-01호)

01월 02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FOMC 회의록·美 고용 살피며 연초 방향성 탐색

서울, 1월2일 (로이터) -

2024년 첫째 주 달러/원 환율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과 미국 고용 보고서 등을 확인하며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되면서 지난주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지속했고, 달러/원 환율은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을 1,280원대로 하락 마감했다.

미국 정책 전환 기대와 반도체 수출 회복 등에 달러/원 환율은 상방보다는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긴 하다. 다만, 최근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어 시장 기대 조정 시 나타날 변동성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금주에는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연준 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12월 FOMC 정책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이다.

작년 12월 회의에서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총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작 시기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후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반영해 온 시장은 이번 회의록을 통해 현 기대가 적절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에는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으로, 고용시장 냉각 신호가 나타날 경우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로이터 조사에서 12월 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11월(19만9000명)보다 감소한 16만3000명으로 예상됐고, 실업률은 3.8%로 전달(3.7%)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날 유로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발표된다. 유로존 물가가 시장 전망보다 둔화될 경우 유럽 중앙은행(ECB) 통화 정책 전환 기대를 자극하며 유로 약세와 달러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외 주목할만한 지표로는 중국 12월 차이신 제조업(2일) 및 서비스업(4일) 구매관리자지수(PMI), 미국 ISM 제조업 PMI(4일)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12월 외환보유액(4일)이 발표되고, 새해를 맞아 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이는 범금융 신년인사회(3일)가 있을 예정이다.

(문윤아 기자; 편집 임승규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월2일(화)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09:00)
- ⊙ 기획재정부: 1차관·2차관 정부 시무식 (09:00)
- ⊙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2024년 시무식 (09:30)
- ⊙ 금융감독원: 원장 2024년 시무식 (11:00)
- ⊙ 한국은행: 2023년 제23차(12.14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1월3일(수)

- ⊙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범금융 신년인사회 (14:00)

1월4일(목)

- ⊙ 한국은행: 2023년 12월말 외환보유액 (06:00)
- ⊙ 한국은행: 2023년 3/4분기 자금순환(잠정) (12:00)

1월5일(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08: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월02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월 2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12월	50.4	50.7
1월 2일	18:00	유로존	총유동성(M3) 증가율	11월	-1.0%	-1.0%
1월 2일	18:00	유로존	가계대출	11월		0.6%
1월 2일	18: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확정치	12월	44.2	44.2
1월 2일	23: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12월		48.2
1월 3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2월29일주간		191.6
1월 4-11일	00:00	미국	자동차판매	12월		2.980M
1월 4-11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12월		1,269.7B
1월 4일	00:00	미국	ISM 제조업 PMI	12월	47.1	46.7
1월 4일	00:00	미국	JOLTS 구인구직건수	11월	8.850M	8.733M
1월 4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확정치	12월		47.7
1월 4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12월		51.5
1월 4일	18:00	유로존	HCOB 서비스업 PMI 확정치	12월	48.1	48.1
1월 4일	21: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12월		45.510k
1월 4일	22:15	미국	ADP 전국고용보고서	12월	113k	103k
1월 4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25일주간	215k	218k
1월 4일	23: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확정치	12월		51.3
1월 5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12월		36.1
1월 5일	19: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 잠정치 YY	12월	3.0%	2.4%
1월 5일	19:00	유로존	생산자물가 YY	11월	-8.7%	-9.4%
1월 5일	22: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12월	163k	199k
1월 6일	00: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11월		5.4%
1월 6일	00:00	미국	공장주문 MM	11월	2.3%	-3.6%
1월 6일	00:00	미국	ISM 서비스업 PMI	12월	52.6	52.7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월2일(화)

- ⊙ 휴장국가: 일본(3일까지)

1월3일 (수)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롤리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경제 전망 관련 연설 (오후 10시30분)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2월12-13일 회의록 공개 (4일 오전 4시)

1월5일 (금)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메릴랜드주 은행인협회 경제전망 포럼에서 연설 (6일 오전 3시30분)

1월6일 (토)

- ⊙ 로리 로건 델러스 연방은행 총재,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 토론 참석 (7일 오전 1시15분)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2024 달러/원 전망)-어김없이 등장한 원화 강세 전망, 키워드는 '반도체·WGBI'

서울, 12월2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새해를 앞두고 원화에 대한 연간 전망은 작년 이맘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차별화된 원화 강세, 그것도 하반기로 갈수록 그 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말이다.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와 이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인하(피벗) 기대가 달러 약세 환경을 만들고 이로 인해 그간 강달러에 압박받았던 이머징 통화들은 강세를 재개하는 가운데 특히, 원화 재평가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주요 해외기관(IB)이 발표한 내년 달러/원 방향은 '상고하저'다. 이 중 일부 기관들은 내년 말 환율이 1,2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 보고 달러/원 솟을 적극 권고하기도 했다.

이들 기관이 제시한 원화의 핵심 키워드는 '반도체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다.

▲ AI 열풍 수혜 기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압박했던 인플레이션 파급력이 약화되면서 시장 시선은 경기로 이동하고 있다. 경제 지표가 '나쁜 게 좋은 것'이 아닌 '좋은 게 좋은 것'으로 해석되는 구간을 기대하는 동시에 '골디락스'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확실히 '킹달러 시대'가 저물고 과격한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만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회복 추세에 올라 탄 반도체 업황과 궤를 같이하는 원화 매력은 돋보일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이유로 주요 IB들은 내년 원화에 우호적인 스탠스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아시아 FX 전략보고서에서 원화를 미국 경제 연락처 수혜를 받는 주요 통화로 꼽고, 이와 더불어 메모리 칩 가격 회복에 따른 한국 수출 반등을 예상하며 아시아 통화 중 가장 먼저 강세 시도에 나설 통화로 분류했다. BOA는 내년 말 달러/원 1,230원을 전망했다.

소시에떼제네랄은 글로벌 자산 배분 보고서에서 반도체 다운사이클 종료를 한국 주식과 원화의 주된 강세 요인이라면서 위안/원 솟과 코스피 룡/일본 제외 MSCI 아시아 주식 솟을 권고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주식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며 원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 내놓았다. 중국 및 미국 등 주요국 경제 성장 둔화로 각 섹터 수익 성장세가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지만, AI와 같은 구조적 성장 테마에 노출된 섹터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역풍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 WGBI 수급 기대

내년 원화 수급 전망 중 가장 조명받는 수급 재료는 단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다.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WGBI지수에 한국은 작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는데, 현재 내년 9월 편입 기대가 높게 형성돼 있다.

주요 해외 IB들은 한국의 WGBI 편입에 따른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분석하면서 이를 원화 강세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

노무라는 아시아 인사이트 보고서에서 달러 약세, 테크 수요에 따른 수출 회복과 경상수지 확대 및 외인 자금 유입 등을 바탕으로 달러/원 숏을 적극 권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의 WGBI 편입으로 12-18개월 동안 최대 500-600억 달러 규모의 패시브 투자 자금 유입을 예상했다.

씨티은행은 아시아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WGBI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규모를 약 570억 달러로 전망하면서 현재 채권투자자와 달리 이 같은 자금은 환 헤지 없이 들어와 원화를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도이치은행은 WGBI 편입에 따른 국내로 유입될 달러 규모를 약 700억달러로 제시했다.

▲ 애매한 中 전망

내년 원화 강세를 예상하는 큰 그림은 작년과 비슷할지라도 중국 경제에 대한 시선 차이가 원화 세부 전망에 미묘한 차이를 만들고 있다.

작년 워드 코로나 시대를 가장 늦게 선포한 중국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환호가 작년 말과 올 초 원화 강세를 촉발시켰다. 하지만, 올해 부동산 시장 급랭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대와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 우려에 시달리는 중국 경제를 대하는 우려의 시선은 견히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재정확대와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 경기부양 노력으로 내년 중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 기대도 있지만 미-중 갈등 구도, 부동산시장 리스크, 지방정부 부채위험 등을 토대로 한 리스크 인식도 여전히 높다.

ANZ는 아시아 경제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 성장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정책 기조는 (경제 성장에 대한) 추진력이라기보다는 안정화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과제와 정책 기조를 종합할 때 내년 중국 GDP 성장률은 올해 5.1%에서 4.2%로 둔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이전보다는 중국과 한국 경제와의 연관성만을 감안해 한국 경제와 원화를 예상하는 경향은 낮아졌다. 미국과 유럽의 AI 등에 관한 신산업 투자 확대로 국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에 위안/원 숏을 권고하는 기관도 눈에 띈다.

하지만, 중국 경제 블록에 속한 한국 전망에 있어 중국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작년에 경험했듯이 중국 경제와 위안 강세 모멘텀이 원화의 폭넓은 랠리를 견인하다, 이후 중국 경제 둔화의 악영향에 원화가 직접적으로 노출된 바 있다.

모간스탠리는 아시아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 자체의 둔화로 인한 지역 성장의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중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시아의 나머지 지역에 대한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대만과 같은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은행 외환딜러는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여전히 있고, 한국이 과거처럼 대중수출의 수혜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의 폭넓은 강세를 예상하기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펀더멘털과 수급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야 원화에 대한 전망도 달라질

듯하다"고 말했다.

(편집 문윤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표)-2023년 韓 코스피지수 수익률 G20 9위... 中 나홀로 마이너스

서울, 12월29일 (로이터) -

올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대표 주가지수 가운데 코스피지수는 변동률 기준 9위로 중간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다.

레피니티브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이터가 계산한 결과 12월28일 종가 기준으로 올해 코스피지수는 약 19% 상승했다. 작년 코스피지수는 20% 넘게 하락하며 G20 회원국 중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중국 부동산 부문 위기와 경제 둔화 우려 속 중국 상하이지수는 연간 약 4% 하락하며 홀로 마이너스 성적표를 기록했다.

※ 2023년 G20 주요 주가지수 변동폭 (12월 28일 종가 기준)

순위	국가	지수명	변동률
1	아르헨티나	MERVAL. MERV	+347.369%
2	튀르키예	BIST100. XU100	+34.255%
3	일본	닛케이225. N225	+28.531%
4	이탈리아	FTSEMIB. FTMIB	+27.942%
5	미국	S&P500. SPX	+24.583%
6	브라질	BOVESPA. BVSP	+22.282%
7	독일	DAX30. GDAXI	+19.951%
8	인도	SENSEX. BSESN	+19.016%
9	한국	코스피. KS11	+18.730%
10	멕시코	IPC. MXX	+18.572%
11	프랑스	CAC40. FCHI	+16.395%
12	사우디아라비아	Tadawal. TASI	+13.871%
13	러시아	TRS. IRTS	+12.397%
14	호주	S&P/ASX 200. AXJO	+8.178%
15	캐나다	S&P TSX. GSPTES	+7.967%
16	인도네시아	IDX종합. JKSE	+6.616%
17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Top40. JTOPI	+4.661%
18	영국	FTSE100. FTSE	+3.637%
19	중국	상해종합. SSEC	-4.356%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